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0.03 [43~45]

- 이기철, 「벚꽃 그늘에 앉아 보렴」 -

(가)
 그늘,
 밝음을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 나도 기쁨 때는 눈물에 젖는다.

그늘,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구나,
 우리도 일일이 형상을 들어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 밝음, 이 빛은,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
 그늘 - 너에게서……

내 아버지의 집
 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
 그늘,
 ㉡ 오월의 새 술들 가득 부어라!

이깔나무 - 네 이름 아래
 나의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가리니…….
 - 김현승, 「오월의 환희」 -

(나)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 놓아 보렴
 입던 옷 신던 신발 벗어 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 놓고
 ㉢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으로 앉아 보렴
 직업도 이름도 벗어 놓고
 본적도 주소도 벗어 놓고
 구름처럼 하얗게 벚꽃 그늘에 앉아 보렴
 그러면 늘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벚꽃 그늘 아래 한 며칠
 두근거리는 생애를 벗어 놓아 보렴
 그리움도 서러움도 벗어 놓고
 사랑도 미움도 벗어 놓고
 바람처럼 잘 씻긴 알몸으로 앉아 보렴
 ㉤ 더 걸어야 달는 집도
 더 부서져야 완성되는 하루도
 동전처럼 초조한 생각도
 늘 가볍기만 한 적금 통장도 벗어 놓고
 벚꽃 그늘처럼 청정하게 앉아 보렴

그러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우리 삶
 벌 떼 잉잉거리는 벚꽃처럼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알 것이다
 그대,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이미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
 벚꽃 그늘로 오렴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②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말줄임표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적 고뇌를 나타내고 있다.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상승적 이미지와 하강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의 성장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그늘'을 제재로 삼고 있다. (가)에서 '그늘'은 '밝음'과 대립하지 않고 결합되어 신의 은총인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안식처로서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도 '그늘'이 위안과 휴식을 주는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나)의 '그늘'은 깨끗하고 순수한 곳으로, 일상의 삶으로 지친 이들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 ① (가) :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늘'이 '밝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 : '그늘'을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는 '빛'은 신의 은총인 '밝음'이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 :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갈 수 있는 '이깔나무'의 '아래'는 '그늘'이 안식처가 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 : '청정하게'는 '벚꽃 그늘'이 깨끗하고 순수한 곳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 : '우리 삶이' '넉넉하고 싱싱해'진다는 것은 일상의 삶으로 지친 이들이 '벚꽃 그늘'에서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 ② ㉡은 자기 성찰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찾은 기쁨의 상태를 의미한다.
- ③ ㉢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은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⑤ ㉣은 인간 세계로부터 분리된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보기>

(가)와 (나)는 모두 '그들'을 제재로 삼고 있다. (가)에서 '그들'은 '밝음'과 대립하지 않고 결합되어 신의 은총인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안식처로서의 의미도 나타나고 있다. (나)에서도 '그들'이 위안과 휴식을 주는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나)의 '그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곳으로, 일상의 삶으로 지친 이들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 읽기 전 활동

(가)와 (나)는 모두 '그들'을 제재로 삼은 시입니다. (가)와 (나) 모두 '그들'의 부정적 속성보다는 긍정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에서의 '그들'은 '밝음'과의 결합을 통해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나)에서의 '그들'은 위안과 휴식을 주는 깨끗하고 순수한 곳으로 드러납니다.

(가)

그들,
밝음을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밝음을 그들로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역설적 표현으로, 밝음과 그들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속성이지만, 화자는 이 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자는 기쁠 때 눈물에 젖는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밝음과 그들을 동일시한 것처럼 기쁨과 눈물 또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구나,
우리도 일일이 형상을 들어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그들이 밝음에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했듯 그들이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일일이 형상을 들어 때로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과 밝음에 대응시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밝음의 형상이고 이를 통해 진리인 밝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밝음, 이 빛은,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
그들- 너에게서……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그들에게서 밝음, 빛을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그들에 '빛'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상황으로 얼핏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자가 그들이 밝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
그들,
오월의 새 술들 가득 부어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보기>에서 언급했듯 밝음을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아 '아버지'는 절대자인 신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 오월의 새 술들을 가득 붓자고 말하는 화자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술을 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화자는 '그들'이 오월의 풍족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깎나무-네 이름 아래
나의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가리니…….
-김현승, 「오월의 환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이깎나무아래에서 고단한 꿈을 잠시 쉬었다 가고자 합니다. 이깎나무는 매우 거대한 소나무의 한 종류로 그들이 매우 넓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지식을 모르더라도 화자가 이깎나무 아래 그들에서 잠시 쉬었다 가고자 하는 것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안식처로서의 그들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보기>를 읽지 않았다면 해석하는데 어려울 포인트들이 많은 시입니다. <보기>를 통해 화자가 그들을 밝음의 충만함을 더해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고 읽는다면 시의 해석이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나)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 놓아 보렴
 입던 옷 신던 신발 벗어 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 놓고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으로 앉아 보렴
 직업도 이름도 벗어 놓고
 본적도 주소도 벗어 놓고
 구름처럼 하얗게 벚꽃 그늘에 앉아 보렴
 그러면 늘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벚꽃 그늘 아래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상징하던 것들을 벗어 놓고 앉아 보라고 제안하는 화자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을 상징하던 것들은 곧 자신의 행동을 옆매이게 하는 족쇄이기에 화자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늘에서 쉬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화자는 자신의 말대로 그늘에서 이런 족쇄를 내려놓으면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서 언급했듯 그들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안식처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벚꽃 그늘 아래 한 며칠
 두근거리는 생애를 벗어 놓아 보렴
 그리움도 서러움도 벗어 놓고
 사랑도 미움도 벗어 놓고
 바람처럼 잘 씻긴 알몸으로 앉아 보렴
 더 걸어야 닿는 집도
 더 부서져야 완성되는 하루도
 동전처럼 초조한 생각도
 늘 가볍기만 한 적금 통장도 벗어 놓고
 벚꽃 그늘처럼 청정하게 앉아 보렴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번에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벚꽃 그늘에 앉아 보길 권하는 화자입니다. 또한, 화자는 집, 하루, 생각, 통장도 모두 내려놓고 벚꽃 그늘처럼 청정하게 앉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했듯 그들이 '청정'하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남과 동시에 이러한 그들이 휴식의 장소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우리 삶
 벌 때 잉잉거리는 벚꽃처럼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알 것이다
 그대,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이미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
 벚꽃 그늘로 오렴

- 이기철, 「벚꽃 그늘에 앉아 보렴」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늘에 앉으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평화로운 삶이 찾아올을 화자는 주장합니다. 또한, 삶이 넉넉하고 싱싱해질 것임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흐린 삶이 즐거워지길 원한다면 벚꽃 그늘로 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보기>에서 말했듯 '그늘'이 일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그늘로 와서 앉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앞의 시와 똑같이 <보기>가 시 해석에 매우 중요한 단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기>를 통해 화자가 그늘을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휴식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넘어갔다면 좋겠습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우선, 수미상관의 기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틀린 선지임을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정서의 변화 또한 등장하지 않고 (가)와 (나) 모두 '그늘'의 속성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②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가)에서는 '그늘'과 '밝음'의 반복을 통해 '그늘'과 '밝음'이 갖는 시적 의미인 '그늘'을 통한 '밝음'의 강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서는 '벚꽃 그늘'과 '벗어 놓고', '앉아 보렴' 등의 반복을 통해 '벚꽃 그늘'로 와서 모든 것을 '벗어 놓고'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③ 말줄임표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적 고뇌를 나타내고 있다.

→ 말줄임표는 (가)에서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에서의 말줄임표는 내적 고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운과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가)와 (나) 모두 '그들'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을 띄고 있을 뿐, 회의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⑤ 상승적 이미지와 하강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의 성장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상승적 이미지와 하강적 이미지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의 성장 과정 또한 드러나지 않는 데, (가)와 (나) 모두 시에서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②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그들'을 제재로 삼고 있다. (가)에서 '그들'은 '밝음'과 대립하지 않고 결합되어 신의 은총인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안식처로서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도 '그들'이 위안과 휴식을 주는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나)의 '그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곳으로, 일상의 삶으로 지친 이들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① (가) :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들'이 '밝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아 화자는 '그들'이 '밝음'에게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혔'다는 것은 '밝음'을 더 돋보이게 한다는 것으로, 이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가) : '그들'을 '채울 대로 가득 채우는 '빛'은 신의 은총인 '밝음'이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그들'에 '빛'이 가득 차고도 남는다는 것은 '그들' 속에 '빛'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밝음'이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③ (가) :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갈 수 있는 '이깎나무'의 '아래'는 '그들'이 안식처가 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갈 수 있는 '이깎나무'의 '아래'는 '그들'에서 힘든 삶을 잠시나마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그들'을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나) : '청정하게'는 '벚꽃 그들'이 깨끗하고 순수한 곳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화자는 '벚꽃 그들처럼 청정하게' 앉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벚꽃 그들은 청정한 곳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곳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⑤ (나) : '우리 삶'이 '넉넉하고 싱싱해'진다는 것은 일상의 삶으로 지친 이들이 '벚꽃 그들'에서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우리 삶'이 '넉넉하고 싱싱해'진다는 것은 이전의 '흐린 삶'에서 벗어나 '노래처럼 즐거운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벚꽃 그들'에서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 ㉠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
- ㉡ 오월의 새 술들 가득 부어라!
- ㉢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
- ㉣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 ㉤ 더 걸어야 닿는

① ㉠은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 기쁠 때 눈물에 젖는다는 것은 화자가 '그들'과 '밝음'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이 '기쁨'과 '눈물'을 동일시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감정의 변화 양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② ㉡은 자기 성찰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찾은 기쁨의 상태를 의미한다.

→ (가) 시는 자기 성찰이 드러나지 않는 시입니다. ㉡에서 화자는 '그들'로 인해 풍성해진 '밝음'을 보고 이를 기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③ ㉢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

→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은 거추장스러운 족쇄를 모두 벗어 던진 본연 그대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④ ㉞은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에 대한 불편함이 모든 것을 벗어 놓고 '벚꽃 그늘'에 앉음으로써 해소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마음은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⑤ ㉞은 인간 세계로부터 분리된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 인간 세계로부터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피로운 일상 속에서 더 걸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화자는 더 걸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집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늘에 앉아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